마음의 출구와 성령의 입구

(고후12:11~21)

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3.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출구와 성령의 입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의 출구와 성령의 입구!
여러분, '모범 시민'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한 모범 시민이, 가장으로써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먹구름이 덮치게 됩니다.
2인조 강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가족들만 사람만 다치지 말라고 애원하는 이 주인공의 간청과는 무관하게, 모든 걸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 모범 시민의 눈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리고 어린 딸마저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두 범인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마땅히 그 참혹한 범죄의 대가를 치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검사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자기의 승소율에 신경을 쓰느라 변호사와 정의롭지 못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두 강도 중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딸을 죽인 그 흉악한 범인은 풀려나게 되고, 그 옆에서 벌벌 떨면서 사람을 왜 죽이느냐고 죽이지 말라고 만류하던 순진한 범인은 사형을 당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 당국과 이 나라의 법체계에 대한 무한 불신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이 법정에서 나온 모범 시민이,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풀려난 10년 전의 그 무자비한 강도가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검사는 이 모범 시민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모범 시민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 검사에게 경고를 하는데, 이상한 것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경고를 하는 고대로, 감옥 밖에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건물이 폭파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누가 내조자가 있나 공범자가 있나 찾아봐도, 연락할 길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과 초까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사건의 발발형태를 보면서 혼란에 빠져들고, 심지어는 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의문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영화가 끝날 무렵에 밝혀지는 것은, 10년 동안 복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감옥 옆에 폐허가 된 공장 부지가 있는데, 그 공장 부지를 사서 공장부지 깊숙한 그 폐허가 된 그 공장 안쪽에서부터 감옥으로 연결되는 터널을 10년 동안 판 겁니다.
그렇게 감옥마다 연결이 되도록 파놓고 특히 독방에 연결 되도록 파서 출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독방 밑바닥에.
그래서 감옥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벌이고,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와, 천연덕스럽게 감옥 안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도대체 감옥 밖에서 어떻게 감옥 안에서 경고한 그대로 사건이 터지는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모범 시민이 만들어 놓은, 이 터널 출구가 되고 감옥을 빠져 나오는 출구, 그리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동시에 출구가 이 문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후서가 13장으로 끝나는데 여전히 사도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당신의 사도되신 표가 어디에 있느냐,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의 된 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된 표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얼른 납득이 갈 것 같은데, 모든 참음이

라고 하는 말이 조~금 낯섭니다.
모든 참음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낯선 게 아니라, 그것을 사도의 표시로 연결 짓는 것이 낯설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도만이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무슨 뜻으로 모든 참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모든 참음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다 봤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교인들한테도 다 알려 주었고, 그래서 그런 알려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다 관통하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러면 이 모든 참음, 모든 일에 대해서 참았다고 하는 이 모든 참음이 사도의 표시가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우리는 인내나 참음이라는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참음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을,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그대로 마음으로 안고, 그 어려운 상황을 내 마음이 붙잡고 어려움을 고스란히 고통으로 느끼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참아가는 거예요.
참는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라 벼르는 게 돼버리지요.
어느 순간에는 폭발해 버리는 거지요, 이게 쌓이다가.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모범 시민이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모~든 참 신앙인의 참음 속에는, 인내 속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내와 참음은, 그것을 감옥으로 여겨서 그곳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감에 참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찌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이 보이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우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상황이 어려운데, 그걸 개선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함에 우리의 소망의 주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참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십자가가, 내 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지금 몸이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출구가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십자가 출구를 통해 빠져나가서, 모범 시민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에요.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게.
내가 죽은 거라고 인정해버리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의 내용이지요.
이럴 때, 우리 몸이 당한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은 만족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절대 평강이 주어져요.
절대 평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갇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금,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박해의 상황을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찬양합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이 봤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빠져나갈 때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참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도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뒤따라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기적의 사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어떻게 풀이하든지 간에, 하나의 기적을 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궁극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로만 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타나신다는 데에.
살아계신 분으로, 그냥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했는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심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십자가를 마음이 붙잡게 되면서, 마음이 십자가를 출구로 삼아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때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exit이 됩니다, 빠져나가는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가, 내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 그 십자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입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의 표식은 십자가를 마음으로 끝없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의 표식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도와 모든 참 신앙인의 필요조건입니다, 필요조건.
근본적인 조건, 공통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인도 되고,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출구와 하나님의 입구가 되는 십자가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붙박이로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참 신앙인의 표식이고, 참 사도의 표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문제는 '우리에게는 지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고 있고,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조심스러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출구가 하나님께는 이 세상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입구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기적이 나타날 때에, 나한테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면, 이 세상에서 마음이 출구를 통해 세상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이 이 세상에 그대로 폐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을, 눈앞에 펼쳐진 그 기적, 나로 인해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의 일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기독교의 진리가 이 세상 깜깜한 어두움의 세상에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바, 그렇게 강력하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로 잡을 수가 있어요, 확증할 수가 있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고 표적이 안 일어나도.
뭐가 증거가 될 수 있냐 하면,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출구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모범 시민이 감옥을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어지는 절대 평강과 만족과 기쁨, 이것이 바로 증거에요.
무엇의 증거입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센세이셔널 한 그런 기적과 표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 일상적으로 보이는 일로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routine 한 업무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마음에 절대 평강이 있고 기쁨과 만족이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출구가 열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절대 평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말하니까.
출구가 열렸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 십자가 출구를 통해 갔다 그러면, 그 출구는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는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 십

자가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들만으로 이어져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십자가 출구를 통해서 하늘로 가서 갖게 되는 절대 평강은 모~든 기적의 산실입니다.
모~든 기적의 어머니이고, 이 세상에 변화무쌍한 삶의 리듬을 따라 가는 자가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요, 모든 기적의 모태가 되는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도로서의 출구와 입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교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사도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케도니아교회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았는데 너희한테서는 안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안 받겠다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주면 줬지, 내 목숨까지라도 주면 줬지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
아! 또 이 후원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공평하지 못했다 그래요.
이게 반어적 표현이지요.
일관성이 없었다는 얘기로, 공평하지 못했다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공평하지 못했다는 말은 사실은, 마케도니아교회들에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왜 우리한테만 돈을 받습니까? 고린도교회에서는 안 받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걸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회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고린도교인들한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교인들의 문제는 지금 출구가 없고 그러므로 입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삶에서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 삶의 어려움을 자기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편을 개선시켜 나가려는 것을 의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든지,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든지, 시간의 대가이든지, 신경을 쓴다는 대가를, 어떤 대가이든지 간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개선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은 출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출구로써의 복음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이 칭의만 허락해서 의롭다고 하는 약속만 말로 전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마음이 폐쇄되어 있고, 이 세상 안에 폐쇄되어 있고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칭의를 줬다고 생각하고.
잘못 된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케도니아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란의 많~은 시련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상황을 마음으로 붙잡고 이 상황을 개선시키려 하지 않고, 충만한 기쁨을 얻었다 그래요.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간 겁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충만한 기쁨을 얻었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얻은 거예요.
이게 벌써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교인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의 입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꼭 표적과 능력과,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만이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이게 표적이 아니면 뭐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에 나타났던 표적과 기적은 뭡니까?
유무상통이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병을 고치고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마

는, 그들이 유무상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요는 뭡니까?
고린도교회교인들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활화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도도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도가 진짜 사도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교인이건 사도건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일하시는 모양과 결과가 달라서 사도이고 일반 교인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으로 생활화할 때의 십자가가 마음이 빠져나가는 출구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입구가 됨으로써, 참 신앙인의 표식이 되고 참 사도의 표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portable 출입구, 이 휴대용 출입구인 십자가를 오늘도 한시도 잊지 않고 휴대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어 내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 절대 평강을 내 몫으로 찾게 하시고, 그 출구가 하나님께 입구가 되어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혀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놀라운 표적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